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A Policy Study on Subject-oriented Special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to Facilitate Sharing of National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노 영 희(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론 | 4.1 주제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요건 |
| 2. 관련 선행 연구 | 4.2 대학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분야 선정 |
| 3.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협력망 사례 | 4.3 주제별 특성화 기반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 모형 |
| 3.1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망 사례 | 4.4 주제별 특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선정과 지원 |
| 3.2 분담수서를 포함한 협력망 | |
| 3.3 국내 협력망 | 5. 결론 및 제언 |
| 4.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 방안 | |

초 록

대학도서관 자료의 전문화, 세분화된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와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추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차별화 정책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를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둘째, 주제 또는 지역별로 형성된 각종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ABSTRACT

Joint collection and sharing of specialized academic resources among academic libraries will not only promote academic research at universities in general but also further diversification and concentration process of academic libraries. For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hould make concerted policy efforts to fortif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academic library. This study proposes two concrete plans to build a n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mprising the specialized resources of academic libraries. One is to utilize the existing cooperative network of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as a national hub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other is to activate various regional or subject-based committees to encourage subject-oriented special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주제별 특성화, 학술정보공동활용, 협력망
Academic Libraries, Cooperative Network, Resource Sharing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14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대학은 신입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교육시장 개방, 그리고 대학간 무한경쟁에 따른 특성화와 전문화의 요구 등 다양한 변화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전문화,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점차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량의 증가, 유통 정보량의 증가,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구독비의 상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개개의 대학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서로가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서관 정보에 대한 개념이 소장에서 접근으로 변화되면서, 협동수서와 자료의 상호대차를 통한 자원공유는 도서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도서관 자료의 전문화, 세분화된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와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추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차별화 정책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고, 학생들은 그들의 학문분야 내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 복잡화 될 것이며,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는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및 정보서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하나의 도서관이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대학도서관 장서의 주제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공동이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의 망라적 수집, 학술자료의 효율적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혁신체제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대학의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이현청 2003), 이와 관련하여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통한 국가전체의 정보격차 해소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정책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발전

시킬 수 있는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체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주제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분담수서를 지향하는 유명한 해외 협력망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은 기존의 협력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롭게 독자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기존의 협력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내에서 분담수서 등을 포함한 정보자료의 공동활용을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관협력망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전문화를 통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요건 제안, 대학도서관별 전문화 분야 제안,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주제화·특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견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적 발전으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게 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연구되고 밝혀진 바 있다(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6). 이들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공동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주요 환경변화와 문제점들은 크게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은 각 나라가 처한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곧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대응하여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이에 각 대학도서관들이 취한 발전전략을 조사한 결과, 자원공유, 공동목록, 공유저장시설, 학술정보자원의 공동협상과 구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옥 2006). 실제로 국내에서도 자원공유를 포함한 공동목록,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협상 및 구매, 상호대차 등의 노력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는 분야로서 비교적 국가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는 공동수서(분담수서)분야이다.

또한, 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이 상호대차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도서관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자료를 대출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이익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자관의 자료만 대출해 주고 타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의 예를 보면 장서가 많은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장서가 적은 도서관에 비해 상호대차 요구가 많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Chapman 1998).

곽철완(2002)은 대학도서관간 정보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연간 구입되는 자료들의 중복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규모가 유사한 도서관간, 그리고 규모의 차이가 있는 도서관간에 0.4%에서 3.88%의 구입자료 중복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원수, 학부학생수, 전공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과 적게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도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대학별 지식정보 자료 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학별로 지식정보자료의 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역할분담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별 지식정보자료 특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숙명여자대학교 세계여성문학관을 그 성공사례로 제시하였다. 세계여성문학관은 여성문학의 체계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 여성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시킬 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서, 여성작가의 순수 문

학 창작물 및 연구서를 전 세계적으로 망라하여 수집 비치하고,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문학 정보를 웹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1998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 11월 30일에 개관한 세계여성문학관은 현재 전시 공간 및 비도서자료 열람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과 도서관장의 역할'에 관한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학별로 특성화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두영 2004).

물론, 특정 주제분야로 특성화 시킬 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 시킬 주제분야를 선정하고, 별도로 설치하여 새로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또한 이렇게 해서 설치된 도서관이 그 주제분야의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시켜 특정 주제분야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협력망 사례

본 절에서는 주제별 특성화·전문화를 기반으로 국가적으로 학술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해외 현황 조사 및 국내 협력망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주제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분담수서를 지향하는 유명한 해외 협력망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분담수서 등을

포함한 정보자료의 공동활용을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관협력망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망이 새롭게 독자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력망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협력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협력망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망 사례

1)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CADIST)

1980년대 초반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배포 및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CADIST (Centre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정책을 도입하였다(김선애 2004). 이 정책의 도입은 프랑스에서 전문연구도서관간 학술정보 수집 및 공동이용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학문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의 역사와 전통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학에 주요 학문분야에 관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 배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CADIST는 연구정보서비스차원에서 특정 주제분야로 전문화된 도서관으로서 명실상부한 대규모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 및 국가차원의 연구를 위하여 학술자료의 수집, 특히 외국자료의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집한 학술자료의 배포 및 이용은 도서관, 연구소 또는 정보센터 등을

매개로 하여 상호대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개 주제분야가 CADIST 정책을 위임받은 도서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김선애 2004).

CADIST 정책을 위임받은 도서관은 장서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책임을 부여 받는 동시에 매년 국가에서 지급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 외에 별도로 자료구입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CADIST 도서관은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현황 조사 및 통계자료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연간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보고 자료를 통해 특별지원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이용현황을 파악하며, 이후 예산반영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CADIST 도입효과를 보면, 첫째, CADIST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외국도서 구입량이 20년 만에 370%(43,000권 → 187,782권) 성장하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공동수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에 있어서 CADIST 도서관들이 각각 26.5%, 38.9%의 장서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셋째, 도서관간 상호대차 건수가 2002년에 755,94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CADIST 참여 도서관의 상호대차 접수 건수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몇 기관은 1년에 40,000건에서 80,000건에 해당하는 상호대차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프랑스의 CADIST 정책은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도서관간 상호대차 활동은 학술자료의 신속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한 온라인 종합목록, 정보망 등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의 기회

가 되었다(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1993).

2) 스칸디아 계획(Scandia Plan)

스칸디나비아 4개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협동 수집을 한 사례이다. 이 나라들은 비교적 작은 국가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세계의 모든 주요 문헌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나라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유사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주제분야를 분담해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하나의 완전한 장서를 구성하는 목표로 스칸디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Hannesdottir 1992).

3) 파밍턴 계획(Farmington Plan)

미국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장서개발의 계기가 되는 많은 이니셔티브는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사건에 의해 고무되거나 시작되었는데, 제 2차 세계 대전이 'Farmington plan'을 고무시킨 것이 그 한 예이다. 수년에 걸쳐, 연구도서관들은 장서개발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수많은 전략을 추구해 왔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파밍턴 계획의 수립은 '모든 중요한 외국도서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책'이 미국 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장 광범위한 노력이었다. 미국의 60여개 전문도서관이 각기 주제분야를 분담, 배정하고, 해당 주제분야의 외국 출판물 중 조금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1부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였다. 구입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파밍턴 계획은 미국 연구도서관 사이에서 자발적인 동의로 수립된 전문화된 시스템이며 대규모의, 분산된 시스템 중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협력적인 장서개발 책임 및 협회의 우선권, 주제 할당의 복잡성, 자료 수집 및 처리의 높은 비용, 지역의 관심을 반영하는 자료들의 수집여부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1972년에 와서 파밍턴 계획은 종결을 보게 된다(Wagner 2002).

그러나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 전역에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계에서 출판된 모든 연구자료들을 수집하고 출판하기 위해 미국 국회도서관이 '수집 및 목록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f Acquisitions and Cataloging)'을 진행했다. CRL(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의 수집 프로그램은 특히 외국 신문, 외국 논문 및 외국 정부간행물에 대한 특성화된 접근을 지원했다. 연구 도서관 그룹(RLG: Research Libraries Group)의 자원공유 프로그램은 또 다른 중요한 노력이다. RLG는 특정 범주 자료의 1차적인 수집 책임을 각 연구도서관에 지정한다. 다른 예로 SALALM(Seminar on the Acquisition of Latin American Library Materials)은 라틴 아메리카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많은 협력적인 노력은 지역단위, 국가단위로 계속되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연구도서관은 적어도 하나의 희귀한 간행물을 물리적으로 수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적인 장서개발을 시도했었다. 또한 소장도서관에 대한 상호대차제도와 개인

적인 방문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자료들의 상호대차로 제한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국제적인 상호대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승인, 시간, 비용 요소들은 국제적인 상호대차에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장서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환태평양디지털도서관연합이다.

4) 환태평양디지털도서관연합(PRDLA)

1995년,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원본 자료에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언어 컴퓨터 서버를 개발하도록 2년간의 지원금을 국가안보교육프로그램(NSEP: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으로부터 받았다. NSEP 교부금의 일부로 UCSD 도서관은 1995년 12월에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환태평양 국가들의 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언어 서버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더 발전시켜 UCSD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자료를 교환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상호협정을 맺었다. 첫 번째 협정은 대만에 있는 Academia Sinica의 중국언어 데이터베이스와 UCSD의 과학정보의 상호이용을 위한 것이었다. 학계와 국경을 넘는 학술자료의 전자적 정보교환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두 기관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이후 이와 유사한 교환프로그램이 베이징 대학, 홍콩 대학 및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으로 확장되었다. 초기의 이러한 자료교환프로그램의 성공은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학술기관 도서관들

과의 다변적인 공동체 개념을 고무시켰다. 1997년 6월, UCSD는 환태평양디지털도서관연합(PRDLA: The 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을 발족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초청된 사람은 1995년 12월 세미나에 대표로 참여했던 기관의 고위 관리자, 그리고 그 기관과 개별적인 친분이 형성된 기관의 고위관리자였다.

환태평양디지털도서관연합은 1997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및 미국에 있는 13개의 유명한 대학도서관들의 협의회이다. 연립의 목표는 환태평양을 통하여 학술적인 연구자료에 용이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공유, 문헌제공, 협력적인 장서개발, 인력자원 교환, 그리고 기술의 공유는 거리, 언어 및 문화의 장벽, 예산의 제약 등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Miller & Karl 2000).

5) 독일문화재단(DFG)

독일에서는 다소 특이한 배경 하에서 전국적 차원의 협동수집이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의 시대적 상황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거의 모든 도서관 장서를 분실 또는 소실한 상태였고, 문헌구입비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복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집된 문헌은 최대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25개 주요 도서관이 주제분야를 나누어 분담수집에 참여하였다.

분담수집 및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총괄하는 기관은 독일문화재단(Deutsche Forschungsg

emeinschaft, German Research Foundation)으로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 중앙학술단체(사단법인)이다.¹⁾ 이 기관은 전 영역의 학술분야연구 지원, 의회 및 정부 관련 기관에 학술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 제 학문간의 교류 및 공동협력, 자국 연구 분야와 외국의 학문을 연계하여 학술의 국제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심원식 2005).

이 재단이 지원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학술문서관리정보화프로젝트(Scientific Library Services and Information Systems)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술연구 지원을 위하여 독일 내의 대학 및 연구단체에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정보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학술문서 관리에 관련된 과제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도서관, (고)문서보관소, 박물관, 미디어센터, 통계센터 등에 지원되고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사회과학, 경제, 법학분야, 인문학 I(어문학), 인문학 II(역사, 예술사, 음악학, 중세 및 근대연구) 등 주제별 프로젝트 지원과 장서 구입 및 인쇄/디지털 형태의 자료 목록 구축을 위한 국가도서관 서비스인 주제별 디지털도서관(Nationwide Library Services - Subject-Specific Virtual Libraries), 디지털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연계 모델 방안 연구, 표준화된 학술정보관리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역사적 자료에 대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의 보존 방안 연구 등 국가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헌분담수서시스템에 전체 예산의 40%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정보의 분담수서를 통해 분야별 학술정보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학술도서관의 경제적 궁핍과 전국에 분산된 남은 학술자료에 대한 수집과 재정비를 위해 추진된 독일의 문헌분담시스템은 1949년 제 1차 조달방침 및 분배계획을 완성하여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학술정보공동협력 구입 및 공급시스템이다. 전후 독일의 학술정보서비스 인프라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독일의 학술정보서비스 역량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약 60여개의 도서관이 120개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국상호대차제도인 'Fernleihverkehr'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각 대학도서관의 공급능력을 넘어서는 학술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비축 문헌은 독일 내의 모든 학자들에게 무제한 제공된다. 이 사업에는 23개 대학도서관 및 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마인 국제교육한 연구소 등 34개 특수도서관, 그리고 응용자연과학기술도서관, 경제도서관 및 의학도서관 등 응용학문 분야의 중앙 전문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3.2 분담수서를 포함한 협력망

3.2.1 미국

1) 캘리포니아도서관협력망(The Library of California: A Network of California Libraries)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1) <http://www.dfg.de/en/>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상호 협력에 대한 시범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1963년 공공도서관서비스법(Public Library Service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는 공공도서관협력체제구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 1979년에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각 주에서는 공공도서관 시스템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 평가에는 자원공유 활동과 공공도서관들 간의 협력과 협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의 공유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열린 주지사 회의에서 각 주의 대표자들은 다중관종 도서관 협력과 협력망 구축을 주장하였다.

이후, 1985년에 100여명의 캘리포니아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들이 Pamo에서 3일간의 회의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적용할 협력망 개념을 연구·조사할 팀을 구성하도록 'State Librarian(주 전체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에게 건의하였다. 그 결과 약 30여명의 전문가들이 'California Library Networking Task Force'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1986년에는 2번의 전체회의를 가졌고, 캘리포니아 협력망에 대한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199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평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The Library of California'라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 전체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The Library

of California' 협력체제를 다중관종 도서관협력망(multitype library network)이라 하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들이 함께 일하는 상호 협력적인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협력망(Network)과 시스템(System)에 대한 구분을 명백히 하였으며, 시스템은 동일한 관종의 도서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협력망은 서로 다른 관종(대학, 공공, 학교, 전문도서관 등)의 도서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협력망은 자발적이고 보완적이어서 쌍방향적인 협력과 협동을 포함하지만, 각 도서관 서비스의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협력망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은 자관의 이용자 요구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2) 뉴욕주립도서관 시스템(New York State Library Systems)

미국 뉴욕주에서는 3가지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23개 공공도서관협력망(Public Library System), 9개 참고·연구도서관자원협력망(Reference and Research Library Resources Councils: 3Rs), 42개 학교도서관협력망(School Library System)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협력망의 총괄은 뉴욕주립도서관(New York State Library, Albany 소재) 산하의 도서관발전국(The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에서 담당하며, 프로그램 개발·교육·예산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년에 운용하는 예산은 연방지원 및 주 지원을 포함하여 대략 1억 400만 달러에 이른다.³⁾

2) <http://www.library.ca.gov/loc/index.cfm>

3) <http://www.nysl.nysed.gov/libdev/libs/>

뉴욕주립도서관은 도서관발전국(The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과 연구도서관국(The Research Library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발전국에서는 뉴욕 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대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도서관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직접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뉴욕주에 소재하는 모든 관중의 도서관 자원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효율적인 상호협력을 장려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정보 접근의 향상을 위해 도서관협력망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도서관을 통하여 자유롭고 시간적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열제도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첫째, 뉴욕주 전체의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지도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 규정제정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도서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 2006).

현재,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753개의 공공도서관, 338개의 분관도서관을 포함하고, 학교도서관시스템은 4,779개의 학교도서관을 포함하며, 참고·연구도서관자원협력망(3Rs)은 900여개 이상의 병원도서관, 학술도서관, 법률도서관, 기업체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포함한다.

3) Denver Public Library가 가입한 협력체제 도서관 협력에서 상호대차활동은 가장 오래된 예의 하나인데, 상호대차를 위한 협력체제의 종류는 ① 하나의 지역사회 혹은 소규모 지역 단위의 도서관 협력체제, ② 정부지원하의 도서관 시스템 혹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③ 상호대차를 위한 주 단위의 구조나 협력망, ④ 여러 주, 국가전체, 혹은 다른 국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력체제 등이 있다. 이외에 다양한 기준에 따른 협력체제 유형 분류 방식을 살펴보면, ① 특정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소규모 지역, 광범위한 지역, 주, 여러 주, 국가로 나누는 체제와 ② 활동의 종류에 따라, 서지 확인, 자료 위치, 상호대차요구 전송, 자료 전달, 상호대차활동 관리로 구분하는 체제 ③ 활동을 규정하는 정책, 진행절차를 중심으로 나누는 체제 등이 있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볼 때,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덴버공공도서관이 가입한 협력체제는 가)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CARL: 지역사회 협력체제, 나) Central Colorado Library System/CCLS: 주단위 협력체, 다) Bibliographical Center for Research/BCR: 여러 주 단위 협력체 등이다.

가.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CARL: 지역사회 협력체제

이 협력체제는 1974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7개 대형 도서관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덴버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4개 주립대학, 1개 사립대학, 주립광산학교가 자발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⁴⁾ 최근에 콜로라도 대학교

보건과학센터(Health Sciences Center), 와이오밍대학교 도서관이 가입하였다. 주 활동 내용은 상호대차, 자원공유, 장서개발, DB 공동 구입 등이다. 이 협력체제 구축의 목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서를 이용하는 것이며, CARL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온라인 목록, 서지 유지 서비스(bibliographic maintenance services)와 UnCover(인용색인 접근, 문헌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체제의 상호대차 규정에 포함된 사항은 대출반납, 무료복사, 협력으로 구입한 자료의 상호대차 등에 관한 것이다. 상호대차신청은 OCLC PRISM 상호대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상호대차에 의한 자료 배송은 초기에는 CARL에 의해서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Central Colorado Library System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 Central Colorado Library System/

CCLS: 주단위 협력체제

이 협력체제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7개의 지역 도서관 협력망의 하나로 체계적인 도서관 상호 협력을 통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1976년에 구축되었다. CCLS는 덴버를 중심으로 한인근 8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으며, 850여 개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 가입되어 있다. 주된 활동 내용은 사서의 평생교육 및 훈련, 가입도서관을 위한 자료배송 안내, 직원컨설팅(발전전략, 공간계획, 문제해결, 대민봉사 등) 등이다. 자료배송은 지

역별로 구분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연결하여 배송하며 비용은 각 도서관이 부담한다.

다. Bibliographical Center for Research/ BCR: 여러 주단위 협력체제

BCR은 6개 주(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가 참여한 도서관 상호 협력 시스템으로 6개 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봉사한다. 6개 주에 있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연구도서관, 의학 및 기업체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온라인 목록을 통하여 자료의 접근,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및 CD-ROM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의하면 복사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2.2 영국

1)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Central Library)

1916년 영국 카네기재단(Carnegie U.K.Trust)의 지원에 의해 학생중앙도서관(The Central Library for Student)이 탄생되었다. 이 도서관은 영국 전역에 걸쳐 협력체제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1년, 학생중앙도서관을 개편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발족되었다. 이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이 요청하는 대출요청 자료를 최우선하여 공급한다. 예외적으로 개인자격의 이용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리고 다른 방도로는 이용하기가 불가능

4) <http://www.coalliance.org/>

할 때에는 이들 요구에도 응할 수 있다.

- 성인 연구그룹의 자료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한다.
- 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대출에 대한 정보 교환소(Clearing House) 또는 자료교환처로서의 임무를 갖는다.
- 국내외의 문헌에 대한 서지정보센터(Center of Bibliographical Information)의 기능을 갖는다.
- 문헌을 이용하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기타 위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첫째, 지역단위로 이용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도서관 협력조직이 확고히 구축되었다. 1931년부터 1937년까지 영국전역을 8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이 지역에 각각 지역도서관국(Regional Library Bureaux)을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재원 조달에 관한 것이다. 이들 도서관국을 조직하는 법적인 보장은 당시의 도서관법(1985년 제정)에 근거하였으나, 재정은 전반적으로 영국카네기재단(CUKT)에 의하여 지원되었다. 1937년 당시에는 8곳의 지역구에서 자체의 협력조직을 상호대차와 협력수서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완성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차 요구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창설과 더불어 설정하였던 기능(즉,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대출 요구로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던 환경이자 동시에 지역협력체제 구

축을 촉진시켰던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종합목록이 필요했다. 종합목록은 이미 학생중앙도서관이 발족하였을 당시 외곽지원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검색을 위하여 필요했던 도구였다. 이 종합목록은 도서관상호간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여 참가관이 평면적으로 편성하는 종합목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앙에 하나의 거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는 외곽도서관의 장서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NLLST

국립과학기술문헌 대출도서관(National Lending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NLLST)의 출현은 국립대출도서관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다. 이 도서관은 정보제공수단을 기계화하고 대출범위를 전문도서관과 학술도서관으로 확장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공존시기에는 인문과학분야를 제외하고 자연과학 및 기술공학분야를 전담하였다. 또한 이 도서관은 정보가 도서관을 통하여서만 확산되는 기본적 구상을 탈피하고 NLLST를 직접 공중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자체장서를 충실히 하며 주제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확립시켰다. 또한 국내위주의 협력체제를 탈피하여 유럽 여러 나라로 봉사영역을 확장코자 노력하였다.

3) BLLD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이 창설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NLLST는 합병되어 BLLD(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이 되었다. 이로써 협력체제의 정비가 완성되

었으며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컴퓨터에 의한 업무의 자동화이며 대사회적 봉사로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4) BLDSC

1985년 '지식과 함께 전진하는 영국국립도서관의 전략계획(British Library Strategic Plan, Advancing With Knowledge)'에 의하여 BLLD는 문헌 공급센터(BLDSC)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모든 관외대출과 정보공급은 이 조직으로 일원화되었다. 업무의 자동화는 이 시기에 이르러 완벽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성되었다.

5) LIEM(Libraries & Information East Midlands)

LIEM은(이전의 EMRLS: The East Midlands Regional Library System) 영국 남동부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의 상호협력 조직으로, 상호대차 협력에 관련된 회원도서관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목적은 도서 및 관련된 자료의 상호대차를 통한 회원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도서관들간에 도서관 시설과 자원을 서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주요 서비스로 상호대차 서비스, 공동구입 및 공동보유, 출판사업, 기타 협력사항 등이다(Libraries & Information East Midlands 2006).

6) 영국도서관의 상호대차제도

영국은 도서관 협력체제의 핵심적 기능인 상

호대차제도(Interlibrary Loan)를 중앙집중형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독자적이며 이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for Student)⁵⁾은 중앙에 한 도서관을 두고 그 주위에 외곽도서관(Outlier Library)을 두는 형식의 협력체제를 출범시켰다.
- ② 중앙관이 외곽도서관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상이 될 도서관에 특정주제에 관한 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단행하고 그 반대 급부로 중앙관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③ 중앙관은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중앙도서관을 국가의 재정지원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강력히 주장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영국의 N.C.L을 의미함)의 창설을 가능케 하였다. 이 도서관은 처음부터 중앙대출도서관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도서관만을 상대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도서관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특이한 운영방식을 시도하였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역협력조직에서 자체해결이 되지 못한 자료요청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지역별 협력체제를 편성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 의미는 다른 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연결

5) Albert Mansbridge가 성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설함.

을 유도하는 중앙집중처리방식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이와 같이 자료요구에 대한 최종 문의처로서의 능력을 지니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관이 먼저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편성된 지역별 협력체제와 연결시킨 피라미드형의 중앙집중처리방식을 정착시켰다.

3.2.3 캐나다

캐나다 앨버타 주의 Shortgrass Library Systems는 앨버타 주의 7개 도서관 시스템의 하나로 주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자료 대출, 종합목록, 상호대차, 참고봉사 등이다.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앨버타 주의 다른 도서관 시스템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hortgrass Library System 2006).

3.3 국내 협력망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주제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수서 및 상호대차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현재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간, 유사분야간 공동수서 또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에는 수십 개의 각종 협회가 존재하나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및 협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공동수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후 분담수서의 밑거름

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제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협동수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조사하고자 한다.

3.3.1 대학도서관 협력망

대학도서관 협력망은 크게 전국규모 협의회와 지역관련 협의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국규모 협의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특정 주제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협의회이고 10여개의 협의회가 활동 중이다. 지역관련 협의회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도서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신속한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2개의 협의회가 활동 중이다(표 1, 표 2 참조).

3.3.2 공공도서관 협력망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41조~45조(도서관협력망)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 협력망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 조정, 지도는 물론 협력망을 통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 공공도서관들과 협력하여 각종 도서관정보화사업, 분담목록, 분담수서, 상호대차, 공동보존, 문화프로그램협력 및 공동홍보,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도서관운영관련 협정(협약)체결,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은 현재 공공도서관협력망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국회도서관을 협력도서관으로 하며 대학도서관 435개관, 전문·특수도서관 549개관, 학교도서관 9,649개관, 공공도서관 487개관을 연계하여 다양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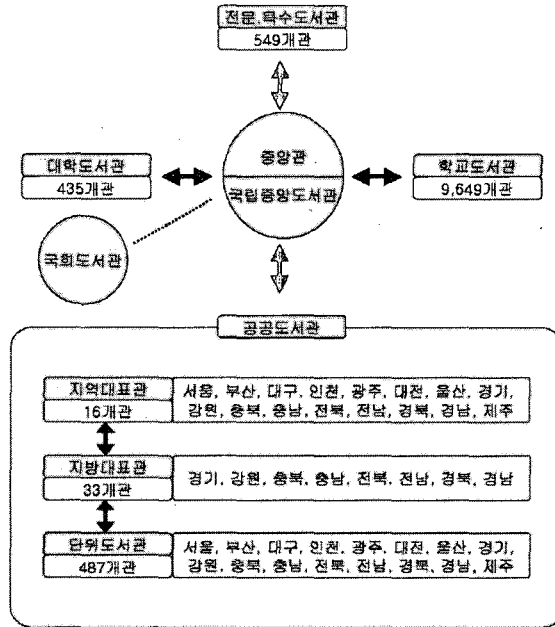
<표 1> 전국규모 대학도서관 협력망 현황

협의회명/협력망명	참여기관수	창설연도	협력내용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49	1979	- 종합대학교 22개, 교육대 16개 -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99	1972	- 61개관 참여 - 원문복사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104	1999	- 104개 기관 중 대학도서관 48개관 참여 - 국외학술지 온라인 원문복사 및 분담목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55	1996	- 종합목록 - 대학학술정보공유사업 - 학위논문서비스 50개 대학, 저작권 관리 - 상호대차
포항공대 자료공동활용협의회	148	1990	- 온라인 원문복사
한국지역대학연합 도서관협의회	8	1995	- 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 - 원문복사, 상호대차 - 외국학술지종합목록발간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102	1999	- 102개 기관 중 대학 66개관 참여 - 해외학술지종합목록 발간
UNION DB 참여도서관간 자료공동활용협의회기관	50	1998	- 대학도서관 13개관 참여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53	1984/1995	-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52	1984/1995	- 원문복사서비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153	1968	- 대학 45개관 참여 -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157	1996	-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표 2> 지역관련 협의회 현황

지역	협의회명	참여대학(기관수)	창설연도	주요활동내역
서울 및 경기지역 협의회	서울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7	1994	- 광운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성대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 -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서울 5개대 해외 학술지 공동이용 및 구독 협의회	5	1998	-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 분담수서
	서울 신촌지역 4개 대학도서관	4	1998	-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 분담수서 -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 AMS의 MathSciNet DB 컨소시엄 구독(홍익대 제외)
	서울남부 3개대	3	2004	-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도서관 - 도서대출협정
	경기지역 6개 대학 학술	6	1998	- 경기대, 경희대(수원), 명지대(용인),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안산)

				- 분담수서 -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충청 및 강원지역 협의회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28	1991	- 28개 기관 중 22개 대학도서관 참여 - 원문복사 서비스
	대전 공공도서관 협의회	12		- 관내 공공도서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 대전광역시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공공도서관 발전도모
	천안·아산지역 도서관 협의회	9	1997	- 나사렛대학,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상명대, 전문대, 순천향대, 천안대 - 상호대차, 원문복사
	Piovia 대전·충남 협의회	17	1999	- 17개 기관 중 13개 대학 도서관 참여 - 서비기관 9개 대학 - 온라인 원문복사 서비스
	강원지역 도서관 협의회	9	1998	- 강릉대, 강원대, 관동대, 삼척대, 상지대, 연세대(원주), 춘천교 대, 한라대, 한림대 - 분담수서, 원문복사
호남 및 제주지역 협의회	전북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10	1998	-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호원대, 한일장신대, 예원대, 예수간호대 - 분담수서, 원문복사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13	1997	- 상호대차, 원문복사 - 서지 DB 통합운영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협의회	46	1968	
	학술정보자료 공동활용협정	3	1998	- 광주과기원, 전남대, 조선대 - 분담수서
영남지역 협의회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5	1997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영남대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 -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부경지역대학 도서관정보교류 협의회	6	1997	-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울산대, 인제대 - 공동수서, 온라인 원문복사 서비스 - 목차 검색 시스템 운영
	부산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회	15	1995	- 경성대, 고신대, 동명정보대학교, 동부산전문대학,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 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신라대학교, 영산대학 교, 한국해양대학교 -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제공
	학술정보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	3	1999.10	- 위덕대, 경일대, 경주대 - 공동수서, 온라인 원문복사 서비스 - 목차 검색 시스템 운영
	학술정보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	2	1999.11	- 위덕대, 경일대 - 원문복사 서비스
기타 지역 협의회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협약서	4	1998	- 신라대/광주과기원 - 인제대/광주과기원 - 원문복사 서비스
	학술교류협정서	2	1999	- 밀양대, 경상대 - 원문복사 서비스
	협정서	2	1998	- 계명대, 육군제3사관학교 - DB공유



〈그림 1〉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조도

계획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5). 그 중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모범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도서관협력망 분야이다. 2005년 현재 공공도서관을 16개 지역대표관, 33개 지방대표관, 487개 단위도서관으로 나누어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대학, 전문, 특수, 학교도서관 등 각 관종별 협력망 기반조성 후에 연차적으로 상호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연도별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협력망 운영현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16개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협력망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협력망 운영계획을 중앙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

다. 한편 33개 지방대표관은 지역대표관과 단위도서관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지역별 협력 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 487개 도서관은 단위도서관으로서 지역별 도서관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중앙관의 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3.3 기타 협력망

기타 협력망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과학기술 정보화근로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KORSA (Korea Resourcr Sharing Alliance), 정보통신부의 지원과 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정협(KOrea Research INformation Association), 6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서울연구단지도서관협의회를 모태로 1995년 10월 창립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회원기관 간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정보관리,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회원의 발전과 한국사회과학의 발전 및 국제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과학 정보자료기관 협의회(KOSSIC),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자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NDSL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전자저널의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저널 도입의 수준과 범위를 파격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고안된 컨소시엄 프로젝트인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등이 있다.

4.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 방안

국내외적으로 관중별, 지역별 도서관의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협력망을 통해서 상호대차, 공동목록, 공동구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분담수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학술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대학도서관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학술정보의 개발을 통한 상호협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전문화를 통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전문화를 통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요건 제안, 대학도서관별 전문화 분야 제안,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모형을 제안하고,

〈표 3〉 기타 협력망 사례

협의회명/협력망명	참여기관수	창설연도	협력내용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72	1999	- 72개기관 중 대학도서관 48개관 참여 - 국외학술지 온라인 원문복사 및 분담목록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102	1999	- 102개 기관 중 66개관의 대학도서관이 참여 - 해외학술지종합목록 발간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405	2001	- 상호대차
한국사회과학 정보자료기관협의회(KOSSIC)	37	2000	- 사회과학 관련 정보자료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동 - 상호대차제도의 운영 - 정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상호자문 - 사회과학 정보자료 수집 및 교류에 관한 조사·연구·출판활동 - 사회과학관련 정보자료 목록 발행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국가연구정보협의회(KORINA)	165	2001	- 정보자료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 그리고 정보자료 수집과 보존의 상호협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56	1995	-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한국과기원 등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또 주제화·특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견이나 제시하고자 한다.

4.1 주제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요건

1) 주제분야 지정

국가적으로 학술정보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협력 도서관간에 장서의 내용에 특성이 없으면 이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다른 도서관에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상호협력의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노동조 2004). 결국 학술정보공동활용에 있어 협력 도서관간에 장서의 차별화 즉, 전문화·특성화를 전제로 한 상호협력 및 협동수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협동수집을 위해 회원 도서관들의 분담금으로 공동소유의 장서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동소유의 장서를 구성할 때는 이용빈도가 낮은 학술지의 구독, 학술지의 과거 발행분, 그리고 값비싼 문헌의 구입 등에 집중되었다. 이제는 협력도서관들의 장서의 주제화·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수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를 통해 참여도서관들이 주력하여 장서를 개발할 주제분야를 지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원활한 분담수서 체제

주제별 전문화·특성화를 기반으로 공동수서를 하게 됨으로써 개개의 도서관은 모든 주제분야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한 주제분야의 장서만을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면 된다. 이

때 특정 주제분야 학술자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은 대학도서관은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면, 자료의 유형 및 언어에 관계없이 망라적으로 자료를 수집·확충할 책임을 갖도록 한다. 즉, 학술자료의 확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장서개발 정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학의 연구 계획 및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행본, 정기간행물, CD-ROM, 비디오,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력도서관의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을 할 경우 수집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고가 또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도 협력도서관간 협의 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3) 국가대출체계의 연계

상호대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대출체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도록 한다. 온라인 종합목록의 연속간행물 정보에는 각 대학의 소장권호(연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장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협력도서관간 24시간 이내에 대출신청 도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지역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대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대차신청은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협력도서관 이용자는 타교열람의뢰서 없이 학생증만을 가지고 타대학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귀본 또는 보존이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보다는 현행 저작권 및 판권 규정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생산된 복사

본을 제공하거나 열람만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4) 협력도서관간 정기적인 회의

개개의 도서관은 하나의 주제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협력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처럼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개개 도서관 대표가 정기적인 회의를 함으로써 전체 학문분야의 이용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매월 한번 정도 협력도서관 담당자가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대학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분야 선정

주제별 전문화·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대학도서관이 속해 있는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속대학의 학문적 전통, 지역적 특성, 주요 연구분야, 특성화 주제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도서관 장서의 주제분야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협력 대학도서관별 주제전문화 분야를 지정해 줄 수 있다.

1) 국·공립 및 4년제/전문대학 등의 특성화 분야 파악

대학별 특성화 및 전문화 분야를 교육부 차원에서 미리 조사하여 각 대학의 주제분야별 분포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참조하여 각 대학도서관을 전문화·특성화 시킬 수 있는 최종 주제분야를 선정하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

부에서는 매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이를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대학도서관을 특성화 시킬 주제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제분야의 선정을 학문분류를 따라 하는 방법이다.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를 다시 세부 분류하여 주제분야를 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문과학의 경우 철학, 종교, 문학, 언어학 등으로 나누어 주제분야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다. 둘째, 소속 대학이 주력하고 있는 특성화 주제분야들을 조사하고 조사된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용시켜 관련분야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2)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전문화 분야 지정 앞에서 수행된 대학들의 특성화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도서관들의 전문화 분야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이 때 고려할 것은 각 대학의 역사와 전통, 특성화 분야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지방의 특성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볼 때 경제적·문화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 정책과 연계한 대학도서관 차별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도서관간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학술정보자료를 개발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기초학문 분야의 자료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자원으로서의 보존, 유통시킬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주제별 특성화 기반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 모형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모형을 두 가지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형성된 각종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4.3.1 KERIS 중심 주제별 특성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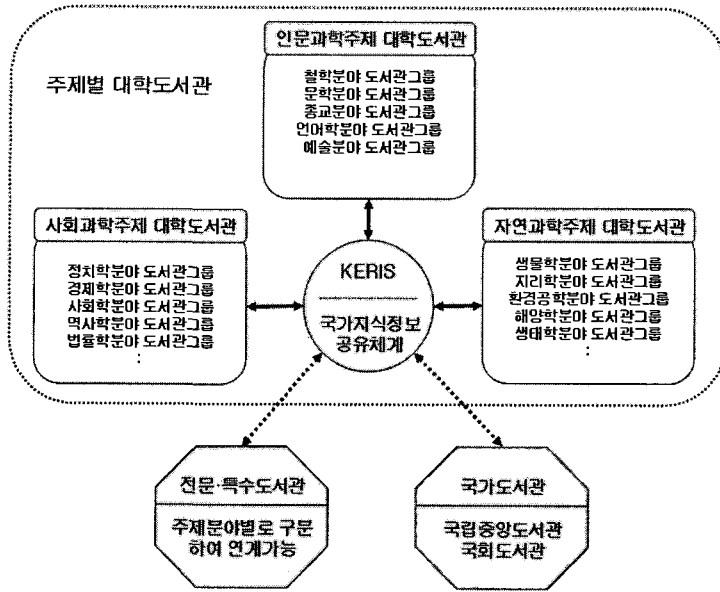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술정보유통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정보화 사업으로 대학도서관을 기반으로 전국에 존재하는 각종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술정보를 국가 자원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도서관의 종합도서목록 DB와 서지목록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상

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학술정보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전자정보 공동활용 체제 고도화를 통한 연구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외전자정보를 유통하며 구매비용절감 및 이용가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학술정보를 공동구매하는 활동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KERIS를 중심으로 한 전국 대학도서관들의 네트워크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참여 대학도서관들의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ERIS 참여대학도서관 중에서 인문과학주제분야 대학도서관, 사회과학주제분야 대학도서관, 자연과학주제분야 대학도서관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세부주제분야별로 도서관들을 그룹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의 간접적인 연계는 물론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도 주제분야별로 구분하여 연계함으로써 국가 학술정보유통체계의 주제별화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ERIS 이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자료의 소장도서관을 확인할 때 검색된 자료의 주제특성화 도서관들을 표시해 줌으로써 해당 도서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도서관이 관심분야에 전문화·특성화되었음을 알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KERIS 국가지식정보공유체계기반 주제별 대학도서관

4.3.2 각종 협의회를 활용한 주제별 특성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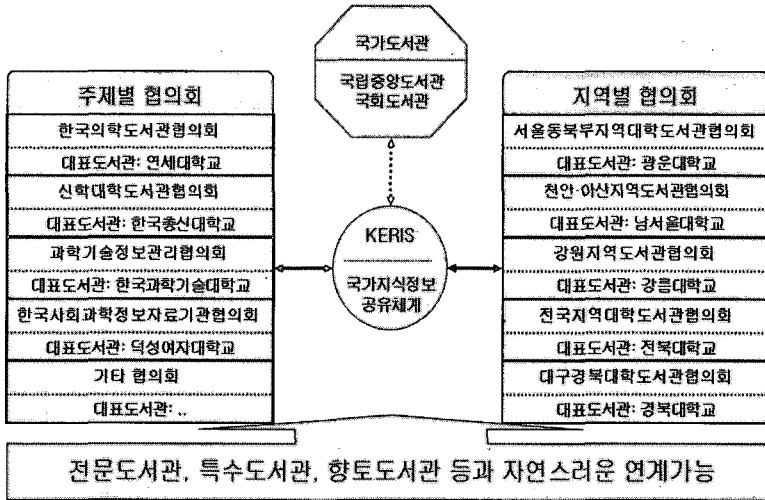
국내에는 지역별, 주제별, 특정 목적별로 활동하는 각종 협의회가 활동 중이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대학의 설립주체 및 대학의 유형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학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이 관심주제분야 또는 소속기관의 특성화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주제의 협의회에 가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위해 지역별로 협의회를 만들고 공동수서 및 상호대차서비스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국내의 지역별 협의회는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국가학술정보공

동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ERIS의 국가지식정보공유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주제별 협의회와 지역별 협의회를 구분하고, 각 주제별, 지역별 협의회에서 대표도서관을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별 협의회는 참여도서관별 주제별 전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회별로 특성화할 주제분야를 선택하거나 몇 개의 주제분야를 선택한 후 협의회 내에서 특성화도서관을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3.3 국가대출체계 및 국가보존서고 설치와 연계

교육부에서는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보존서고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술정보공동보존 및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



〈그림 3〉 각종 협의회를 활용한 국가학술정보공동활용 모형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은 대학도서관의 주제화·전문화·특성화와 연계시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술연구정보의 통합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협동보존 및 공동이용체제 구축,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할 대학도서관을 지정함에 있어 주제별로 분담하여 대학도서관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장익, 장수정 2002, 50). 다시 말하면, 국가 보존서고 설치를 고려할 때에도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분담하여야 하며, 이것은 곧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와 연계되어야 함으로 의미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술정보활용이 현재 KERI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활용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장익, 장수정 2002, 52; 김준형, 권준모 2002, 118-123).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주제화·전문화를 기반으로 공동수서체제를 확립하고 국가대출체제를 적극 보완할 경우 그 활용도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4 주제별 특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선정과 지원

4.4.1 주제별 특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대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대학 내외의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인 대학도서관들의 전문화·특성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대학의 변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를 천명하고 있듯이 대학,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국가적 학술정보유통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 유통체제에 참여하는 대학도서관들은 백화점식으로 정보자료를 갖추

기 보다는 각 대학별로 전문화·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도서관들의 주제별화를 유도하고 지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각각의 대학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전문화·특성화 주제분야에 지원하도록 한다. 대학도서관은 소속대학의 역사와 전통, 학문적 특성, 인접한 지역산업의 특성, 주력 학문분야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각 대학도서관이 전문화·특성화할 주제분야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특정 주제분야의 도서관이 집중될 경우 협의를 통해 제 2지원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특히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자료의 개발 및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의 대학도서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제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대학도서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별 안배에서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나누어 선정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 주제별 특성화에 참여할 대학도서관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대출체계(온라인 종합목록)에 반드시 참여되어 있어야 할 것과 지원한 주제분야의 장서보유 현황, 향후 그 주제분야 장서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정책의 효율성을 배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센터가 지정된 대학의 도서관을 동일한 주제분야로 특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에는 인터넷 참고정보원을 대학도서관들이 협력하여 구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정보원을 구축할 때에도 주제별 특성화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전문화나 특성화,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4.4.2 주제별 특성화에 참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에 참여한 대학도서관들은 해당 주제분야의 자료를 자료의 형태나 가격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신속·정확하게 전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별 특성화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은 국내 어느 도서관보다 해당 주제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장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해당 주제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대학 당국의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특정 주제분야에서 완벽한 장서를 갖추기까지 특별지원금 또는 자료구입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대학평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장서의 주제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선정된 대학에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화·특성화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대학도서관은 국가차원에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물론 그 주제분야의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즉 자료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담수서 및 주제전문화에 예산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이 상호대차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도서관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자료를 대출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이익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자관의 자료만 대출해 주고 타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한다. 주제별 특성화 대학도서관은 연간활동보고서를 매년 교육부에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한다. 즉, 특별지원금의 상세한 사용내역, 전문화·특성화 주제분야의 자료 구입비용의 추이, 자료 증가 현황, 상호대차를 포함한 대출통계, 타대학 이용자의 그 주제분야 열람통계, 활용자료의 유형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활동보고서를 통해 특별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시하고 이후 실적을 기반으로 예산지원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타 대학에 대한 자료제공 실적 등을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각종 지원에 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이은철 등(2005)은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OECD 국가들의 도서관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평가지표에서 평가점수 총 500점, 총 8개 항목 중에서 정보서비스 점수로 100점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협력 네트워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부터 대학도서관 평가항목으로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및 자원공유(상호대차 요청 및 제공 건수, 공동목록 참여 건수,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를 평가지표로써 추가하기로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관련하여 주제전문화를 통한 적극적 상호협력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부에서는 국가적 대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보존서고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술정보공동보존 및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의 협력망 구축은 위 두 정책과 별개로 진행되어서는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즉, 국가보존서고 설치도 주제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제별 특성화 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도 동일 주제분야 국가보존서고 설치도서관에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학술지지원센터가 배정된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각국의 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도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의 소속기관인 대학도서관도 특성화된 자료의 개발과 학술정보의 공동이용 협력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료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각 대학도서관의 백화점식 자료 수집이 아니라 전문화·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수집, 공동활용을 추구하여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자료의 전문화, 세분화된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와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추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차별화 정책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를 제안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형성된 각종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제안하였다.

KERIS 중심 협력망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KERIS 참여대학도서관 중에서 인문과학 주제분야 대학도서관, 사회과학주제분야 대학

도서관, 자연과학주제분야 대학도서관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세부주제분야별로 도서관들을 그룹화시킴으로써 각 대학도서관이 특정 주제분야에 차별화된 장서를 개발하게 하고 공동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내에 활동 중인 지역별, 주제별, 특정 목적별로 결성된 각종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KERIS의 국가지식정보공유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주제별 협의회와 지별별 협의를 구분하고, 각 주제별, 지역별 협의회에서 대표도서관을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별 협의회는 참여도서관별 주제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회별로 특성화할 주제분야를 선택하거나 몇 개의 주제분야를 선택한 후 협의회 내에서 특성화도서관을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제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는 하나의 개별 대학도서관이나 몇몇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또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 대출체계나 국가보존서고 설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지원과 운영비 지원, 각종 대학평가나 대학도서관 평가에 상호대차서비스제공 건수 반영, 정기적인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한 예산통제와 감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민. 2005.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 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2.
-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6.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3-28.
- 곽철완. 2002.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구입자료 중복율에 대한 조사 연구: 경기도 소재 3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47-155.
-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개발 연구』, 2001. 10.
- 권희정. 2003. 『대경지역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사례: 분단수서와 ILL/DDS를 중심으로』. KERIS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2003. 11.18: 13-28.
- 김선애. 200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 정보 공동이용 방안. 『한국비블리아』, 15(2): 141-159.
- 김준형, 권준모. 2002. 『대학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2-1.
- 김지홍. 2004. 『국내 대학도서관 ILL/DDS 현황 및 전망: ILL/DDS 발전 추이 및 주변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2004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제5회: 283-300.
- 김창근. 1994.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도서관 상호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7집: 43-101.
- 노동조. 2004. 『상호협력의 과제와 미래』. 2004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제5회: 234-250.
- 심병규. 1995. 대학도서관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127-144.
- 윤정옥. 2006.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55-82.
- 이용남 외. 2002. 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 13(2): 127-154.
- 이은철, 광병희, 곽철환, 백항기. 2005.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5-7.
- 이제환. 2003.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정보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지원. 1996.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실. 1999.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3. 『우리나라 신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청. 2003.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대학 국조조정 전략. 『대학교육』, 126(11/12월호).
- 이현청. 2003.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대학구조조정 전략. 『대

- 학교육』, 126(11/12).
- 장익, 장수정. 2002. 『대학교육정보화 활성화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2-1.
- 전혜영. 2004.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핵심전략 요인 분석 및 제언: 의학도서관협의회 상호대차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2004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제5회: 251-268.
-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 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조현양. 2004. 『학술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해외 저널 분담수서 및 활용 방안』. 2004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제5회: 300-320.
- 차미경. 2001. “전문도서관 공동수서의 방법과 전략.” 정보관리연구, 32(3/4): ??
- 채창권. 2003. 대학도서관 상호협력 사례 연구. 『사대도협회지』, 제4집: 103-12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대학학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동정보원. 연구보고 KR 2000-6.
- 한성택. 2004. 국가 통합 도서관 협력 체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9-49.
- ACLC. 2006.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vr.kunsan.ac.kr/aclc/>>.
- Chapman, Liz. 안정아 역. 1998. 도서관의 협력적 장서개발-자료의 공동구입을 통한 경제서 향상. 『국회도서관보』, 35(4): 75-82.
- CLA. 2006.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www.clib.or.kr/>>.
-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 2006. “Information about Library System.” [2006. 7. 4].
 <<http://www.nysl.nysed.gov/libdev/lib/index.html>>.
- Hannesdottir, Sigrun Klara. 1992. *The Scandia plan: a cooperative acquisition scheme for improving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in four Nordic countri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KMLA. 2006.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www.kmla.or.kr/index.html>>.
- KORINA. 2006. 국가연구정보협의회. [2006. 7. 4]. <<http://www.korina.org/>>.
- KORSA. 2006.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2006. 7. 4]. <<http://www.korsa.or.kr/>>.
- KTLA. 2006.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www.ktla.or.kr/>>.
- KUPLA. 2006. 국·공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www.kpula.or.kr/index.php>>.
- KUPLA. 2006.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6. 7. 4].
 <<http://www.kpula.or.kr/index.php>>.
- Libraries & Information East Midlands. 2006. “Our vis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East Midlands.” [2006. 7. 4].
 <<http://www.liem.org.uk/index.asp?sortby=d&>>.
- Miller, Bruce, and Lo Karl. 2000. “From Farmington Plan to the 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New Strategies in

- Developing International Collections.”
Collection Management, 24(3/4): 241-250.
-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1993. Mission et Fonctionnement des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CA-DIST). Bulletin officiel de l’Education nationale. No.1: 58-63.
- NDSL. 2006.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http://www.ndsl.or.kr/>〉. [2006. 7. 4].
- Sanner, L. E. 1979. Scandia Plan: Collecting Coope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 Shortgrass Library System. 2006. “The Regional Library System for Southeastern Alberta.” [2006. 7. 4].
〈<http://www.shortgrass-lib.ab.ca/>〉.
- The Library of California. 2006. “About the Library of California.” [2006. 7. 4].
〈<http://www.library.ca.gov/loc/index.cfm>〉.
- Wagner, Ralph D. 2002. A History of the Farmington Plan. Lanham, Md.: Scarecrow Press.